

세계 정치와 하나님 (2)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창세기 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시편 22:28]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시편 103:19]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1. 아담의 소명과 실패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스스로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지구의 환경과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땅과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소위 '세계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신 사실에 관해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선조들에게 주신 세계 통치의 소명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소명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절대적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통치 행위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통치 행위를 자신의 뜻에 따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금기 사항으로서 선약과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초 할머니-할아버지는 이 소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매우 단순하면서도 엄중한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 결과로서 몇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그분들은 세계 통치의 권한을 잃게 되었습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계 통치의 절대적 권한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을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평생동안 일궈야 그로부터 소산을 얻게 되고 그것을 먹어야 살게 되었고,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 그 육체가 썩을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 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한과 능력을 지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몸으로 땅을 일구는 하나의 농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관리의 절대적 통치권을 가졌던 아담의 이전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처지인 것으로서, 우리는 이 두 모습을 그려서 대조해 볼 때에 아담이 세계 관리의 통치권을 잃게 되었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이 아담에서 주셨던 절대적 세계 관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과 피조물들에 대한 “선한 관리자”의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치의 권한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관리할 책임은 아직 인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은 제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대홍수 때까지 약 1600 여년 동안에 이 지구에는 인구가 많이 붙어났는데, 그 기간 중에 당시의 제한된 세계를 통치한 사람들을 비롯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수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직후에도 문자가 있었음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노아가 대홍수 이전의 창세의 사실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하여 방주에 가지고 승선함으로써 그 기록이 나중에 모세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 민족이 보존한 옛 문서인 ‘야셔서 [Book of Jasher]’에 의하면 에녹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휴거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선생이요 관리자로서 당시의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 대홍수 사건과 노아의 소명

에녹 이후의 세상은 극도로 악하게 되어 세상이 인간의 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게 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만들어 대 홍수의 재앙을 피했던 커다란 배 [方舟]는 오늘날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 산 근처에서 화석이 된 그 유적이 발견되어 터키 정부에서 기념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noahsarkdiscovery.com]. 미국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된 기념관이 건립되어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www.arcncounter.com]. 그러면 대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관리, 통치 권한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대홍수가 많이 가라앉아 노아와 그 가족이 배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1-3]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노아는 대홍수 이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소명에 비하면 훨씬 제한된 소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 하며 우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하심으로 이제 인간이 육식과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 지배하는 대상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관리자”의 책임은 아직 인간에게 그대로 두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이 번성하기 위하여 식물과 동물을 먹잇감으로 활용하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하게 관리해 가면서 이용해야 한다는 자연 활용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이 이러한 명령을 지키면 다시는 물로, 즉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9-13]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은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오늘날 LGBT 부류의 죄인들이 무지개를 자기네들의 심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만드신 무지개를 죄악의 징표로 만들어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자기네의 죄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죄악을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행위를 잘 보고 계시며, 그들에게 상응하는 징벌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도 기독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구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3.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확산

대 홍수 이후에도 인간성의 퇴락은 계속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니므롯 [Nimrod]이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도시들을 세우고, 그 중 하나인 오늘 날 이라크 남부에 있는 바벨 [Babel = Babylon]에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탑을 건축하는 목표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번성하여 온 지면에 흠어져서 “땅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르는 탑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100 층이 넘는 높은 고층 건물이 전 세계에 여러 개가 건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중동의 두바이에 2008년에 세워진 Burk Khalifa 라는 건물로 높이가 828 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은 무너뜨리시고 오늘날의 고층 건물들은 그대로 놔주시고 계실까요? 바벨탑을 건축했던 그들이 건축을 계속 했다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왕국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흠어서 서로 의사소통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들을 억지로 온 세상에 흠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원전 2300 년 즈음인

것은 세계의 기록된 모든 문명 발원의 시기가 공통적으로 기원전 2300 년 전후인 것과 일치함을 볼 때에 성경의 기록이 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기원을 표시하는 단군 1 년은 기원전 2333 년으로서 바벨탑 사건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세계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온 세계로 분산되어 각 민족이 그 책임을 수행하면서 변성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맡은 소명을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자신의 뜻이 집행되도록 능동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4. 아브라함, 이스라엘 및 출애굽 사건

이 즈음에 사악한 통치자 니므롯의 우상 숭배 강요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용감하게 지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Abram]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야서서에 의하면, 아브람은 심지어 그의 부모 집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렸는데 그 벌로서 니므롯 왕의 명령에 따라 그 형 하란과 함께 불속에 던져 졌지만 하란은 죽고 아브람은 죽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니므롯의 체포 위협에 당면하자 아직까지 생존해 계셨던 노아와 그 아들 셈 할아버지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는 노아 할아버지의 집에 한동안 기거하는 동안에 그로부터 홍수 이전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고 이를 가슴 속 깊이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나중에 모세가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국인 우르 땅을 떠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 만큼 많게 할 것이며,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을 주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고 기뻐 하셔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選民]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16-18]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는 것은 “*네 씨 안에서 [in your seed]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분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라고 하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갔다가 나이 30 세에 그 나라의 총리로

발탁되어 그 나라의 7년간 지속된 풍년의 소출을 잘 보관, 관리함으로써 그 후에 7년간 지속된 흉년을 잘 견디도록 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유로 야곱의 일족 70여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약 200여년간 그곳에서 살았는데, 요셉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홍해 [오늘날의 아카바 해협]를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어려운 경험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 큰 이적들로 개입하셨고,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율법과 예배 체제를 수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위하여 이처럼 크게 관여하시고 직접 지도하시며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면서 국가 수립을 가능하게 하신 유례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심으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신실함과 순종으로 응답하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바라면서 돕기를 원하셨는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개입하신 여러 행위 중에서 주요한 것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국가 관리와 정치에 관여하신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1)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 [여호수아 1장]
- 2)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심 [사사기 6장]
- 3) 삼손을 지도자로 세우심 [사사기 13장]
- 4)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 [삼상 10장]
- 5)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삼상 16장]
- 6) 다윗의 왕위를 이어 받을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축복하심 [열상 3장]
- 7) 북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정죄하심 [열상 21장]
- 8)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열하 9장]
- 9) 앗시리아 왕 산해립의 군대를 파멸시키고 그를 죽이심 [열하 19장]
- 10)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대 왕국을 정복하게 하심 [열하 24장]
- 11) 바빌론 왕국의 벨사사 왕을 패하시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세우심 [다니엘 5장]
- 12)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지명함 [다니엘 6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계 정치에 개입하신 조치들은 다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조치들로서, 위의 목록에서 1), 4), 5), 6)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적절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신 조치로서, 위의 목록에서 2), 3), 8), 9)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륜에 대한 징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경고도 주시고, 외세의 정복 전쟁에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도 주시고, 심지어 왕가와 백성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도록 까지 심한 징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방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교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분류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위의 목록에서 7), 10), 11), 12)가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개입 조치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장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정착한 후에 왕들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숭배하도록 백성을 오도하였고 온갖 부패와 추악한 문화를 조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이방신 몰렉의 제단 앞에서 불 가운데 태워 희생하도록 하는 아동 번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워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2 천년 이상 방랑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48 년에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6. 우리의 자세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불만을 품는 것을 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멀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의 뜻을 추구하는 백성이 과연 누구이었던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그 분만을 찾고 경배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경배하고자 합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만을 표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조치들에 불만을 표현할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 즉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 시키심으로써 죄인된 우리와 자신 사이에 참된 화해와 화평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그 중간 단계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세계 통치의 모델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실패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 유대인들을 통해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무한히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만큼 적극적으로 세상사에 관여하실 수 있었는가?”라고 할만큼 많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사에 주관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는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